

나주시, 농민 주름살 펴는 농업정책 속도낸다



강인규 나주시장이 최근 공공비축 미곡 수매 현장에서 농민들을 만나 벼 품질 및 수매가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 확대...올 162→내년 500농가 이상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제 조례 제정...내년부터 시범운영 로컬푸드 직매장·일자리 지원센터 등 활력 불어넣기 박차

나주시가 침체한 농업·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FTA 여파와 기후변화 등으로 큰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는 농촌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 제도 확대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 봄 시범사업으로 첫 도입한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농업인 월급제 내년 대폭 확대

나주시는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농업인 월급제를 농업인들의 호응 속에 내년에는 대상지역과 농가수를 대폭 늘려나가기로 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농민에게 수확기 전까지 매달 일액의 돈을 급여처럼 지급하고, 수확기 벼 수매 때 수매자금에서 지급액만큼 상환받는 제도다.

나주시는 최근 지역 농협 등 농업인 월급제 사업추진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사업 대상 범위를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나주시는 내년 사업대상 농가수를 올해 162농가에서 500농가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나주시는 올해 남평, 마한 등 4개 농협, 6개 읍·면지역에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해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나주시가 올해 지원한 농업인 월급제 예산은 10억5700만원으로 월평균 지급액은 1억5100만원이다. 농가별 수령액은 월평균 30만원에~100만원 사이다. 시는 농협에 관련 이자 2400만원을 지급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사업 참여 농민이 자체 예산으로 해당 농가에 수확기 출하할 벼의 60%를 금액으로 환산해 7개월간 나눠 미리 지급하면 나주시가 수매매매일이 끝나는 12월 월급 지급과 기간 이자를 각 농협에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소득이 가을에 집중된 농가들이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이 필요한

시기에는 생활비 등이 부족해 대출을 받아 이자까지 내면서 생활하고 있다"면서 "농가 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는 대출금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 확대 시행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 조례

나주시가 내년부터 도입하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제도'는 농민들이 밭 흠러 가꾼 농산물가격의 폭락 피해를 막는 최소한의 수익 보호 장치다.

시는 제도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지난 10월 수급이 불안정한 노지 채소 생산농가와 농협 등의 계통 출하조직 간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고, 소규모 영세농 및 가족농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예측 가능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오는 2020년까지 최소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 대상 농작물 및 지원범위, 최저가격 및 자조금 조성 기준 등을 심의하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담고 있다.

또 노지채소 중 계통출하조직과 계약재배하는 품목을 기준으로 하고, 품목별 1000㎡ 이상, 전체품목 합산 1만㎡까지 지원 대상으로 하는 최저가격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를 비롯한 최저가격 결정 및 고시 방법과 차액지원 및 제재 기준, 계통출하조직의 육성 및 책무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첫 시도인 만큼 2~3년간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 뒤 시 재정상황 등을 감안한 추가 준비를 통해 차질 없이 정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동상생 드림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나주시는 농업·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에 대처하고, 대도시의 유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인력지원으로 농가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농동상생 드림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중이다. 나주시와 화순군이 7대3 비율로 모두 15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인 일자리 지원센터는 올해에만 4~10월 말까지 나주시 105농가, 화순군 21농가 등에 연인원 1만7000여명의 일손을 지원했다. 나주시는 농동상생 드림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배춧 따기, 열매숙기, 봉지 씌우기, 수확 등 기계화 작업이 어려운 배 재배농가 등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맞춤형 인력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나주시가 혁신도시에 지난달 25일 정식 개장한 로컬푸드 직매장 빛가람점은 지역농업에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남 자치단체 중 최초로 직영으로 운영되는 로컬푸드 사업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결실을 맺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직매장에 농가가 직접 매일 소포장한 농산물을 진열해야 하는 로컬푸드는 대규모 경작을 하는 상업농보다 소농과 고령농에 적합한 사업이다. 매일 조금씩 소량을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특성상 수확기에 일시적으로 큰 소득을 올리는 방식이 아니어서 농가 소득에 안정적으로 도움이 된다. 특히 다양한 지역농산물의 가공을 장려하기 때문에 농가 부가치 증진에도 효과적이라는 게 나주시의 설명이다.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확대

나주시는 농민이 농민들의 바쁜 일손을 덜어주고 건강도 함께 챙기는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155개소, 하반기 152개 마을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와 함께 협력 사업으로 추진했다.

나주시가 전국 최초로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한 마을 공동급식 사업은 농번기 일손경감과 어르신 돌봄 문화 조성 등 농촌마을의 맞춤형 공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마을별로 공동급식 시설을 갖추고 농번기 중 상·하반기 각 20일 동안 15인 이상 급식 가능한 마을에 공동급식 준비를 맡은 조리인력 인건비와 부식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2000년 나주 역사 담은 대서사극

'영산연가' 오늘 문예회관에서 공연

나주의 2000년 역사를 작품화한 대서사극 '영산연가(榮山戀歌)'가 무대에 오른다.

9일 나주시에 따르면 10일 오후 7시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고대에서 현대까지, 2000년 나주 역사를 담은 영산연가를 첫 공연한다.

'나주 문명(文明)을 노래하다. 영산연가'를 주제로 한 이 작품은 영산강 중심에 살아왔던 나주의 역사를 노래하고 새로운 문명의 주인으로서 새천년을 준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나주시립국악단과 나주시립합창단원 등 74명이 출연하는 대서사극이다.

총 8장으로 구성됐으며 연주, 무용, 소리, 퍼포먼스, 합창 등이 어우러진 종합공연으로 기획됐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연출과 안무에 이영일 가천대학교 연기예술학과 교수, 작곡에 황호준씨 등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호남을 대표하는 브랜드 작품으로 탄생했다. 나주시는 이번 초연을 계기로 앞으로 외부 초청공연과 다양한 행사를 통해 나주 역사문화를 홍보하는 대표 브랜드 작품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영산강을 따라 이어온 2천년 역사문화는 나주 뿐만 아니라 광주전남의 역사가 모두 녹아 있다"며 "광주전남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역사문화의 땅이라는 나주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빛가람시립도서관 30일 개관

나주혁신도시 공공청사 내 빛가람시립도서관이 오는 30일 문을 연다. 빛가람시립도서관은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이주민에게 다양한 지식정보와 유용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건립됐다. 전체면적 1453㎡에 지상 3층 규모로 지난해 8월 착공했으며 총 사업비는 40억원이 들었다.

1층에는 어린이와 가족자료실, 종합자료실, 다목적실, 2층에는 영어 및 한자자료실, 열람실이 자리잡았으며 3층은 열람실과 북카페, 휴게실로 꾸며졌다. 휴관은 첫번째와 세번째 월요일이며, 열람실은 휴관일에도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다. 빛가람시립도서관은 7일부터 시작한 시범운영 기간에 도서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1만여권에 달하는 도서 배열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나주시 15일까지 농림어업 총조사

나주시는 9일 "오는 15일까지 2015 농림어업 총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총조사에는 184여명의 통계조사요원 교육이 투입됐으며 지난 1일을 조사기준 시점으로 농림어업에 대한 가구와 가구원의 규모, 구조, 분포 및 특성을

파악하는 국가기본 통계조사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농림어업'은 경지 1000㎡ 이상을 직접 경작하거나, 사육하는 가축평가가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가, 산림면적 3ha 이상 육림업 경영, 벌목, 양묘, 채취업을 경영하는 임가이며 어로·양식업업

1개월 이상 경영하거나 양식하는 수산물 평가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등이 모두 포함된다.

총조사 기획예산실장은 "농림어업 총조사는 농림어업분야의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매우 중요한 조사인 만큼 인터넷 조사참여(www.aificensus.go.kr) 및 조사원의 방문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造化秘傳 命學謬說全 祝發刊

총16편 259장 357절 외 의고15秘傳 (판형 19.6×26.6cm) 907p

命은 天地所賦 人所稟受요 學之爲言은 効라 萬象의 生死法則으로 엮어진 命理秘書가 國內는 물론 世界의 易醫學 研究書이며 특히 韓醫學의 지침서라 할 정도로 病藥說化 收錄했고 배우고 연구하며 알고 시는 시대로 變遷함에 無師自通의 書冊이 發行되었다.

- 天命의 품수대로 살아가는 인생 알아야 흥액을 피해간다.
- 時流따라 음양오행을 연구하는 시기 맞추어 명학유익실이 출간되었다.
- 현명한 후손이 나와야 가문 발전한다. 부부상합에서 출생이치 책속에 들어있다.
- 궁합이론과 질액 사주판단법이 자세히 수록되어 세계인이 읽어야 할 교서이다.
- 사상의학이나 오운육기의 어려운 학설보다 더 빨리 질액판단할 수 있는 비고의 서책이다.

1. 음양오행의 법칙이란 만상의 변화법칙이며 만물의 생사법칙의 근본이다.
2. 정신기의 법칙이란 천지도리 만상의 주체 순리의 본시이고 천지신명(三神)의附이다.
3. 천신의 강약에 음은 순응하고 따르는 공간에 기의 유동함이 삼라만상의 생사법칙이다.
4. 천지신명 삼신의 시후와 남녀정신이 맞아야 입태됨을 논리했다(天命精確論)
5. 음양이치를 통달하면 도학의 경지를 넘어 현달한 선사일 것이다.(精神氣三神論)

◎ 本命學謬說은 後日 道學者가 評價할 것이다.

- 一. 下元甲子시기 때 맞추어 보태하고 사주 맞추어 개복하기 때문에 이 책이 필요하다.
- 二. 격국을 도표하여 숙견표화했고 十干의 강약과 통변의 이치를 알기쉽게 논리했고 복습고증 1040구절을 말미에 정리한 신비의 책이다.
- 三. 六十甲子를 寅申巳亥柱 二十子午卯酉柱 二十辰戌丑未柱 二十強弱구분 정리했다.
- 四. 甲子~癸亥까지 각주를 소상하게 설명하여 시기 득실을 표시했다.
- 五. 十干을 十二支月 분석 조건표 과감유준 상격用 희기신 숙견표 정리했다.



- ◎ 天神下降 地神順應 制化之中 多端人生
- ◎ 貧富得失 在於生剋 論命知理 強弱窮通
- ◎ 天地精神 年月日時 中和之勢 富貴無疑

남화정출판사 · 남화정역리원

編著者 역학강사 新知識人 鉉山 金 鎬 瑒
주문전화 : 062)522-9653 농협계좌 : 302-8645-2254-81

◎造化秘評+命理秘訣+책값壹拾五萬圓